

2018 글로벌 고려 강화 포럼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학 공부

Learning Humanities in Digital Environments

金 炫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

hyeon@aks.ac.kr



이 저작물(PPT)의 인용 표시 방법:

김현,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학 공부", 2018 글로벌 고려 강화 포럼 발표 자료,
강화여자고등학교, 2018. 7. 75.



1. '디지털 인문학'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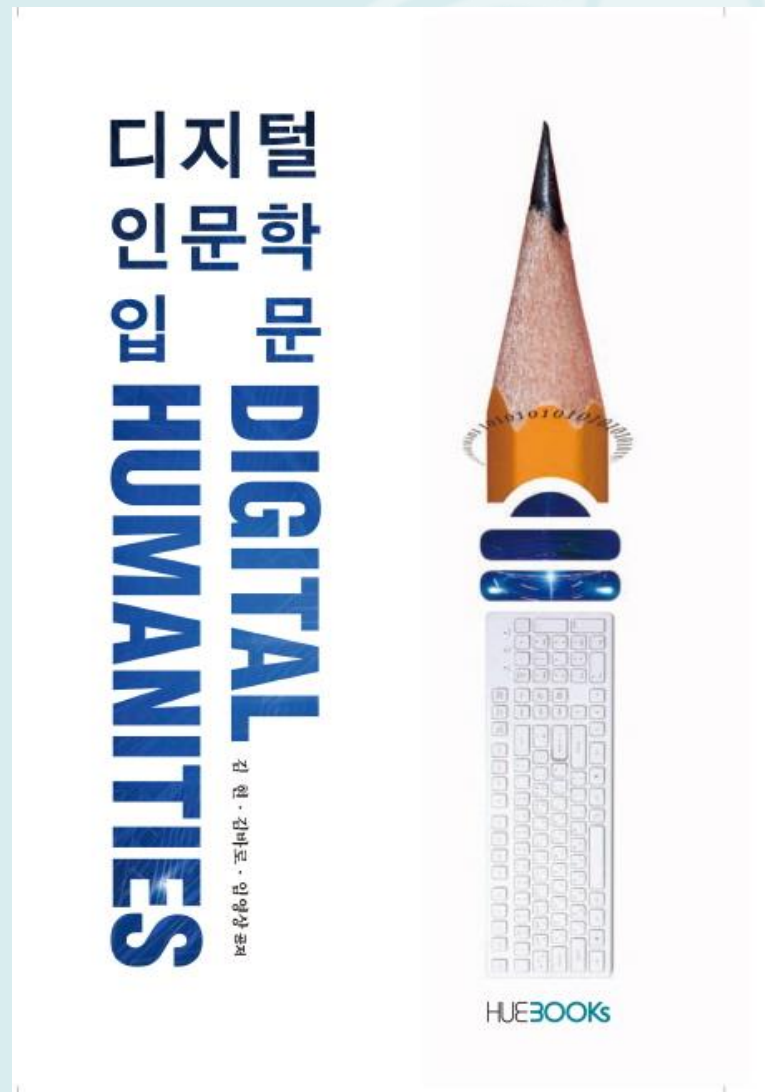
2. 디지털 문식과 인문 교육

3.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목표

4. 디지털 인문학 교육 실습

디지털 인문학의 세계는 디지털과 인문학이 만나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곳이다. 그 융합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문학 연구와 인문지식의 교육, 그리고 그 연구와 교육의 성과가 디지털 시대의 우리 사회에서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되도록 하려는 노력을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한다.

(김현, 『디지털 인문학 입문』, 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부, 2016. 5.)



❖ 디지털 인문학의 3가지 키워드

1. 인문학 (연구) 연구 방법의 혁신을 통해 인문학 본연의 학술 연구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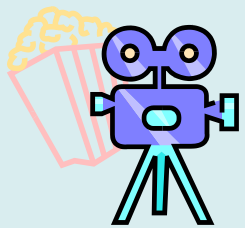
- ✓ 나무만 보는 연구 →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연구
- ✓ 혼자 하는 연구 → 공동으로 하는 연구 → 모든 개별적인 연구가 공동의 성과로 결집되는 연구



2. 인문교육 (교육) 우리의 차세대에게 디지털 문식(Digital Literacy)의 능력을 키워 줄 인문교육 콘텐츠와 교육 방법론 개발



3. 인문콘텐츠 (활용) 인문 지식이 학계의 벽을 넘어서서 대중과 소통하고 창조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 개방



❖ 디지털 인문학 = 현대의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은 모든 인문학이 새롭게 갈아입어야 할 옷과 같은 것이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인문학은 더 이상 현대의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 적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인문학자들은 모두 디지털 인문학자일 것이다.” (김현,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29, 2013. 6.)

❖ 우리가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려는 일

디지털로 표현하고 디지털로 소통하는 이 시대에 인문지식이 더욱 의미 있게 탐구되고 가치있게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



1. '디지털 인문학'이란?

2. 디지털 문식과 인문 교육

3.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목표

4. 디지털 인문학 교육 실습

Let's teach kids to code

사람들은 대부분 "디지털세대"(Digital Natives)로 불리는 요즘 젊은이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용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물론 이 젊은 세대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문자, 게임, 채팅 등을 하는 것이 익숙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능숙"(fluent)하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데 아주 많은 경험이 있고 익숙해져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이나 새로운 기술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마치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Mitch Resnick: Let's teach kids to code (2012. 11. TED 강연)



디지털 시대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배우고, 소통하며, 표현하는 시대

디지털 원어민 (Digital Natives*)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소통하며, 표현하는 것에 익숙한 세대

※ 기성세대: Digital Immigrants

디지털 시대의 인문 교육

- ☞ 디지털 원어민(Digital Natives*)을 위한 인문 교육
- ☞ 디지털 환경에서 '읽을' (reading)뿐 아니라 '쓸' (writing) 수 있도록 하는 교육
- ☞ 배우고 암기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응용하고 창조하고 표현하며, 이를 통해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1. '디지털 인문학'이란?

2. 디지털 문식과 인문 교육

3.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목표

4. 디지털 인문학 교육 실습

❖ '디지털 인문학'을 배워서 얻고자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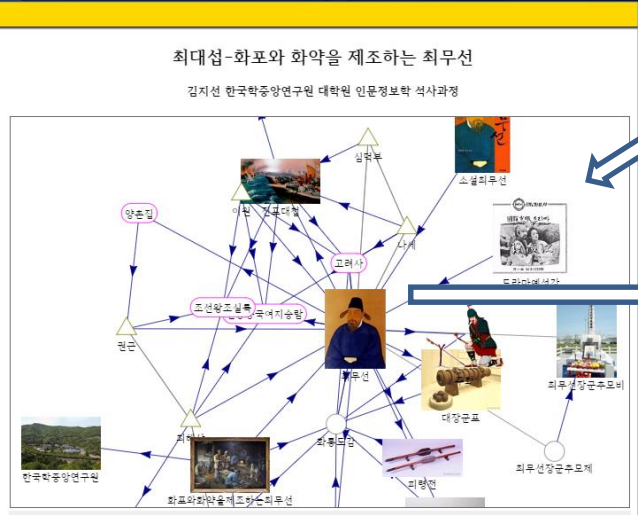
- **전통적인 인문지식**을 배우는 새로운 방법
 - ☞ **디지털 원어민**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
- **미래의 인문학 연구자**가 되기 위한 연구 능력
 - ☞ 장래에 인문학 분야의 연구자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연구 역량을 갖추기 위해 연마해야 할 학술적 소양
- 인문지식의 문화적 향유를 촉진하는 **문화콘텐츠 기획** 능력
 - ☞ 인문학 기반의 문화콘텐츠 기획 및 저작 능력을 증진
- 디지털 환경에서 '**나의 인문학**'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 ※ **나의 인문학**: 자신의 관심사를 좇아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자기의 관점에서 그 결과를 체계화하는 생활





❖ 민족기록화 가상 미술관

- 미술작품과 한국학 지식이 만나는 디지털 전시 공간
- 한국문화/예술 자료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최무선

(국문) 최무선 (한자) 崔茂宣 (영문) Choi Mu-Seon

범주

프로젝트: 민족기록화
클래스: 인물
기여: 김지선석영

속성

시대: 고려
성격: 발명가
성별: 남자
본관: 영주(永州; 현재의 영천)
생몰년: 1325(충숙왕 12)~1395(태조 4)

설명

우리나라에서 화약과 화약을 이용한 무기를 처음 제작
사용하였다. 무관인 그는 고려 말기에 한창 기술을 부
리던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화약(火藥)이 필요하
다고 생각해 중국 사람들의 황제가 갖은 무역항 벽안도
에 가서 중국 강남 지역에서 온 상인들에게서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상인(商人)들에게서 얻은 상인들에게서



1. '디지털 인문학'이란?

2. 디지털 문식과 인문 교육

3.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목표

4. 디지털 인문학 교육 실습

❖ Mission

- 전통적인 인문학의 세계에서 '언어'로 표현해 오던 '사실과 지식에 대한 기술'을 '데이터'로 표현하는 방법의 이해

❖ 실습 과제

- 아래의 문장을 데이터화 하고 네트워크 그래프로 표현하시오.

'글로벌 이슈 포럼'은 미래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강화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 7월 25일, 강화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2018 글로벌 고려 강화 역사 포럼' 개최를 기념하는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성호 교수의 포럼 소개에 이어, 김현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인문학 교육'을 소개하였다.

나는 친구 이영자, 김지은과 함께 이 강연회에 참석하였다.

